

주일에배  
 대방(오전) 7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2월 14일 (제108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한 영혼이 귀하다

어느 목사가 1부 예배에 한 명이 출석하니 예배를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보고를 했다. 나는 그 보고를 받고 참으로 황당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의 예수중심교단은 한 명에서 비롯되었다. 만 리나 되는 만리장성도 하나의 돌이 쌓여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얼마나 헤매셨는가. 요한복음 4장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찾아가시지 않았던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땃돌을 떼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영혼으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퍼져 나갈 수 있다. 그 한 영혼이 마틴 루터가 될 수 있고, 무디가 될 수 있고, 이초석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이것은 내 목회 신조요, 목회 철학이다.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잘 살피고 잘 인도하였기에 하나님이 내게 많은 영혼을 보내 주신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철산리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다.

잘나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귀한 영혼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영혼이 아니다. 예수님은 되레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우고 고통 받는 한 영혼에 집중하셨고,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하였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고도 하셨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한 영혼을 귀히 여겼는가, 한 영혼에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부디 모두가 한 드라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쓰는 주인의 심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 간사한 자는 가면을 쓰고 사는 자다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은 간사한 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나는 죽은 하나님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예수를 전한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넘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빌 2:10). 곧 하늘의 문제나 땅에 있는 문제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일 사입니다. 간사할 간(奸)의 한자를 보세요. 계집 녀(女), 방패 간(干), 간사할 사(邪)는 어금니 아(牙), 언덕 부(阜)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간사한 자들은 거짓된 세상 권력을 뒷배라고 자랑합니다. 방패 뒤에 숨은 채 ‘내 뒤에 청와대가 있어, 검찰이 있어, 재벌이 있어’ 하며 큰소리 치고 몰래 안 보이는 어금니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마다 다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간사한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사

하셨지요.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서 빌라도와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약속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고 이스라엘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은 사람들의 말에 부화뇌동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외엔 단호히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니엘 같이 간사함이 없



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로부터처럼 조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각자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인생의 성과가 그에 따라 갑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 자유의지대로 따먹었기에 에덴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누리다가 내쫓겼던 것입니다.

멸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시작할 때 마음, 곧 첫사랑을 잃은 겁니다. 멸망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간사(奸邪)라는 낱말 뜻을 봅시다. 간(奸)은 간사할 간, 속일 갑입니다. 사(邪) 역시 간사할 사, 속

람, 수시로 변하는 사람, 아주 기회주의 자들입니다. 이중스파이, 이중간첩이 누구입니까? 아군과 적군에 양다리를 걸치고 암약하다가 진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결국 양쪽으로부터 버림받고 말지 않습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마귀에게 걸치고 세상과 짝하다가 결국엔 다 버림받고 맙니다.

천하에 제일 간교한, 간사한 것이 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간사한 뱀의 핏에 넘어가 낙원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간사한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싫어한 무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자, 평토장한 무덤 같은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이 피할 수 없다고 질타

는 자는 눈앞에 현혹하는 말이나 모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분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장로와 백성들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좋게 하려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닙니까?

분명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거로 하여 때사 하나님의 말씀에 닮았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1, 2체육관 총 600명 분산해서 참석)**  
 ◆1부(7시)예배: 강서지역전체 + 광명, 양천, 오류, 고척교구 참석  
 ◆2부(10시)예배: 강남지역 나머지교구 + 교육부 참석 ◆3부(2시)예배: 강북지역 전체 참석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2:14~22)



# 너는 청함 받은 자냐, 택함 받은 자냐?

어느 나라나 세법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데, 이를 어기고 탈세를 하면 국가로부터 많은 제재가 있고,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세법이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한 이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도 “가이사(세)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 법을 준수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마 22:21).

###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세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일조입니다.

다들 돈 얘기하면 자라목이 되는데, 사실 십일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국가에 세를 바치면 국가가 그것으로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복지 향상을 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십일조를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3:11~12).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나라와 기업에, 네 교회와 가족에, 그리고 네 삶에 황충이 끼지 않게 하사 때를 따라 실한 열매를 맺으며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일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서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쪽군이 소돔 고모라 왕과 일전을 벌였는데, 소돔 고모라 왕의 참패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재산이 다 탈취 당했고, 그 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처자와 함께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해서 야음을 틈타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렘왕 벨기세텍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벨기세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벨기세텍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가 얻은 것 중에 십일조를 하나님의 제사장 벨기세텍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벨기세텍은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대주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십일조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해가 저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유숙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에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벧엘’이라 이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



총회장 이초석 목사

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28:20~22).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라 금의환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일조란 10개의 소득 중 1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0만원 벌면 10만원 하나님께 드리고, 닭이 알을 열개 낳으면 한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것 중의 1/10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 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십일조를 못 드리는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돼지가 새끼 낳은 것까지는 드리는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선교사를 각 나라에 파송하여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풍족한 자가 있는가 하

면,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진단하건대, 그들이 십일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거기서 십일조를 떼서 보내는 자들은 다 넉넉하여 오히려 지원금을 사양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원금을 받고도 여전히 쪼들립니다. 그들 말인즉슨 어차피 그 돈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새삼스럽게 십일조를 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세금 안 냅니까?

말라기 3장 7절에는 하나님이 “내 계로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로 돌아오는

방법은 ‘회개하라.’가 아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3:8)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일조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는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듯 말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현대판 선악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 십일조를 잘 하고도 야단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바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인데, 그들은 박하나 회향 같은 중요 소산물의 10분의 1은 엄격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의(義), 사랑(仁), 믿음(信)은 온

데간데없이 형식과 의식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십일조는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 한두 달 쯤 되었을 때의 일이니 거의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사업이 왕성할 때라 천만 원 넘는 십일조를 당좌어음으로 드렸습니다. 사실 목에 힘 좀 주고 품도 좀 잡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랑삼아 어느 집사님에게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당연한 일을 했는데 무슨 자랑입니까?”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 말에 창피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닌 마땅한 일입니다.

요즘 청년 아이들이 첫 열매와 십일조를 들고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이고, 천사와 천군이 도울 것이며, 그들을 위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축복들이 예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불황 중에도 호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십일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3:10).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으셨는가하면 이는 ‘십일조를 심으면 약속한 모든 것을 꼭 준다.’고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 현대판 선악과는 바로 십일조다

축복받고 싶지요? 잘 살고 싶지요? 십일조하면 됩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돈 내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답을 보고도 문제를 못 풀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길을 헤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십일조를 안 하는 자들에게 ‘도둑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자비가 넘쳐도 도둑놈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십일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로 주장하는 법, 도둑놈 되지 말고 십일조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책을 펴다 ::

# 기도의 열매

#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마라

19세기 말, 영국의 한 청년이 기도하던 중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는 음성이 침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는 그 순간부터 모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의대에 가서 실습을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더 많이 운동하고, 현지 적응을 위해 침대 대신 매트리스로 바꾸고, 중국어로 된 누가복음 한 권을 구해서 간단한 구절들을 영어성경과 대조하며 한자를 익혔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갖 역경을 헤치고 전 생애를 중국 선교에 바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끼니가 없어, 격변하는 중국 사회 환경으로 인해 선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길 바랐습니다. 그의 51년간의 중국 선교사역은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생기게 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느헤미야는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 훼손된 예루살렘성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금식하고 통곡하며 조상의 죄가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곽재건의 해법을 찾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

곽재건을 위해 주의 종으로 헌신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수많은 방해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기간에 성곽이 재건되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우리와 대화하시길 바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응답하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기도할 경우에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은 헌신, 그 다음은 어린 아이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열매로 가지고 돌아오리다”(시126:5~6).

Dr.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고대 중국의 주(周)나라에 태보(太保)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개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이 나라 제후들은 왕에게 때마다 개(犬)를 공물로 바치곤 했는데 어느 날 여(旅)라는 오랑캐 나라의 제후가 ‘獒(오)’라는 진기한 개를 선물로 보냈다. 태보(太保)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서 움직이는 그 개가 어찌나 예쁜지 ‘獒(오)’에게 흠뻑 빠져버렸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왕의 동생인 소공(召公) 석(奭)이 정사를 걱정하여 형인 왕 태보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올렸다.

“귀와 눈에 팔리지 마시고 모든 법도를 굳게 하소서. 물건에 마음이 팔리면 소중한 큰 뜻을 잃게 됩니다. 조그만 행위에 소홀하시면 마침내 큰 덕을 손쉽게 되오니 산을 아홉 길 쌓아 올리고서도 한 삼태기가 모자라면 그 들인 공이 일그러지고 마옵시다.”

소공은 애완에게 마음이 빼앗겨 주(周)

왕조의 기틀을 다져감에 소홀한 왕에게 충언의 글을 올린 것이다. 여기서 공휴 일케(功虧一簣)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오랫동안 쌓은 공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허사가 됨을 일컫는 말이며, 정성스레 한 일이 끝이 조금 모자라 그동안의 수고가 다 무산되는 것을 말한다.

“공들인 탑이 무너지라.” 말한다. 그러나 공들인 탑도 무너진다. 계속 공들이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다. 그날까지 공들이지 않고 한눈을 팔면 그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기 쉽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묻혀 살지는 마라.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 야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 To Be Succeeded ::

:: 낮은 울타리 ::

# 오직 성령으로

# 새로운 기준

어느 해 기도원집회 때였다. 그 날도 하나님은 세우신 당신의 종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셨다. 당시 환경과 나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두워진 심령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친 심령 위에 성령과 새 힘을 부어주시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꿈에서 나는 갑작스레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큰 사거리에 수없이 널려 있는 크고 작은 차들은 아무런 질서도, 교통법규도 없었다. 게다가 내가 운전하는 차 앞으로 정체를 모를 큰 물체들이 갑자기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는데 이건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민첩하게 운전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과 운전대와 운몸을 사로잡은 그 힘은 그 모든 장애물을 순간순간 정확하게 피하게 하여 미세한 안전사고조차 완벽하게 막아주었다. 꿈이었지만 그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성령님’이란 것도 알 수 있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

여 기도회 힘쓰는 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으며, 나아가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맞이했음을 볼 수 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목사를 통해, 또한 성도들의 수없는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성령님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며,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현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믿는 이들과 세상 자녀를 구분 짓는 능력과 지혜,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은 세상은 보이지도, 듣지도, 받아보지도 못한 놀라운 비밀이고,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의 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케 하며, 나아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무언가 여유 있어 보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도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3:5~6). 이국진 사모

최근 뉴스에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New Normal’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졌던 현상이 일상이 된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계속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것과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편한 마스크를 찾는 등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대학부 안에서 영혼을 섬기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초반에 저는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고 생각을 바꿔 매주일 온라인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친구가 매주 온라인 모임

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번 주에는 1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삼지 않고 방법을 찾으니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도 ‘어쩔 수 없지. 코로나 끝나면 다시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기회로 삼을 것이냐, 위기로 삼을 것이냐,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는 내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IQ(감성지수)나 EQ(지능지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AQ(역경지수)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신앙도 챙기기 힘든 시기’라고 말할 때 ‘지금도 부흥하기 가장 좋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처럼 ‘New Normal’에 적응하고 이겨내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장수정

:: 성경에서 배운다 ::

:: 빛이 되리라 ::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연히 대한민국 피아노 조율 명장 이종열 조율사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피아니스트들이 그의 실력을 극찬할 만큼 명성이 높은 분이죠. 자그마치 66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 이제는 눈감고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자신이 80대이지만 작년부터 올해 좀 더 발전하고 있으며, 일의 힘들음에 마음을 두었다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겸손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전히 청년 같은 명장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노년의 나이와 디지털시대의 변화 같은 어려움은 일절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정진하는 명장들의 특징은 이처럼 초심을 잃거나 자만하지 않고, 나이와 환경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갈렙의 선포를 기억해봅시다. 긴 세월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나누게 됩니다. 지나보다 넓은 땅, 좋은 땅, 이미 정복을 마친 편한 땅을 받고 싶었겠지요. 상상하건대 그중 누구도 헤브론만큼은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정복도 못했고, 튼튼한 성으로 둘러싸였으며, 거인 같은 용사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땅 자체가 높은 산지, 거친 들인지라 정복 후에도 땅 흘려 가꾸어야 하는 최악의 지역이었죠.

하지만 이때, 85세 갈렙이 나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40세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아직 전투력이 남아있으며,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산증인이자 45년 동안 전쟁터 최일선에서 온갖 고생을 했을 갈렙에게 그 흔한 공포의식, 현실 안주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 붙어있다면, 하나님

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는 변함없는 믿음과 도전만이 흘러넘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갈렙을 온전히 축복하시고, 그 땅의 전쟁을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편안함을 거부하는 갈렙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월이 희미해지고, 어려움에 사라진 것 같아도 변함없이 그 사명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이유 앞에, 이제 담대히 외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용기만 내도,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것이며, 당신 삶 가운데 전쟁을 끝내시고,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 Good News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이나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열풍현상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 주고 산 로또복권으로 407억 원 당첨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았는데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를 보면 역대 복권 1등 당첨자들 중에 정상적인 삶

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폐인이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죽으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액의 돈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814만 5,060분의 1의 확률에 기대를 걸고 일장춘몽의 꿈을 꾸지만 100% 확률의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뒤에도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대박이요, 로또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복권에 당첨되려면 마감시간 전에 복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 지체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오늘의 메시지 ::

# 나는 손을 아낀다

나는 손이 부드럽다. 피부가 깨끗하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하려 한다. 내가 존경하는 패형은 손을 아끼지 않는다. 집안일을 할 때나 청소할 때는 우선 손을 아끼지 않는다. 더러운 것들도 손으로 닦으면서 일한다. 일꾼이다. 나는 더러운 것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 기본적인 것에도 인색하니 살신성인의 도를 어찌 행할 수 있으랴. 신학교 시절, 대기업을 사직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젊은 신학생이 단을 설치하는 일을 마치고 웃을 갈아입으면서 말했다. “나는 이초석 목사의 교리나 설교가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피부가 붉어 문드러진 성도의 고름을 손으로 닦아내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평생을 따르리라 작정했습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말씀하시는 목사님. 그러나 본능적으로 나를 아끼고 버리지 못하는 이 그릇은 어찌해야 합니까? 신학교 시절, 나를 따르는 장애인 아이를 품에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체육관 바닥에서 몸을 못 움직이는 장애인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예배드리는 전도사의 모습은 성모를 연상케 했습니다. ‘너를 버려라’ 말씀하시며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못난 애착은 미련스럽게도 버리질 못합니다. 눈 먼 장애인과 지낼 때도 모 든 것이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정신지체인과 생활할 때도 마음이 열려 있지 못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시농이 었습니다.

전도사 시절, 기도원집회를 마치고 목사님 곁을 지나칠 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는 너를 버려라.”, “아, 예.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냥 버리면 되지 뭐가 힘들어?” ‘내 설교는 쉽다. 실천이 어렵다.’ 항상 말씀하신다. ‘그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이 못난 손조차도 아끼는데 온 몸 바쳐 성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뒤라서 쫓아갈 수 있을까.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처럼 경각을 지니고 깨어계신 모습에 나는 한없이 부끄럽고 못나서 괴롭다. 이 뿌리 깊은 자기애를 어찌하랴. 게으르고 타성에 젖기 쉬운 우리에게 목사의 질타는 추상같다. 이제 목사의 진두지휘하시는 말씀을 따라 변화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빛을 발해야 된다.

**이광주 목사**

# 책의 힘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두 권의 책을 읽은 사람에게 지도받게 되어 있다.’ 위 문장은 노예해방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맘에 새기고 인생의 모토로 삼았다는 명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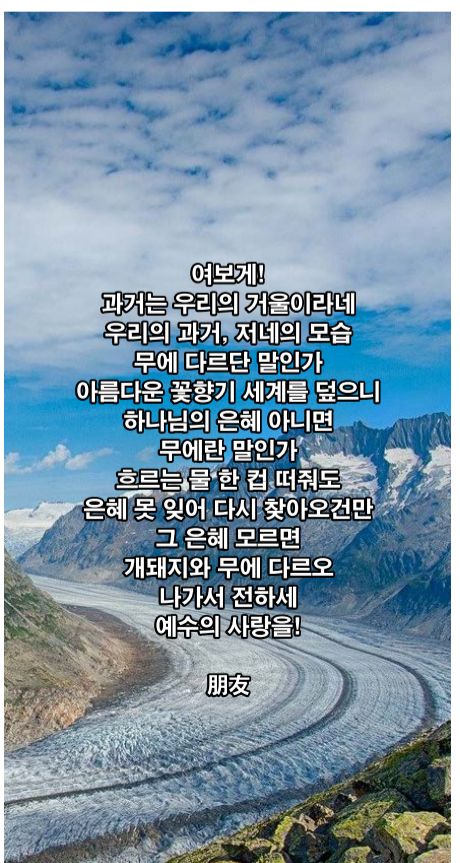
실제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어머니마저 그가 10살 때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교육 환경마저 좋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주변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위 명언을 떠올리며 어릴 적부터 열심히 성경과 다방면의 책을 읽었고, 책벌레, 독서광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독서에 심취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어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주 의원, 하원의원을 거쳐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된다.

책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책을 쓴 그 저자의 인생과 지식과 경험이 그 책 한 권에 송두리째 녹아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읽으면 저자 인생의 엑기스를 모두 흡수해낼 수 있다. 그러한 책을 다방면으로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물을 흡수한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지식과 교양과 비범함과 천재성도 함께 자라난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15세 이상 국민의 40%가 일 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바쁘고 경쟁적으로 사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걸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위 명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리고 세상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다시 한 번 핸드폰보다 책을 손에 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어보게!**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라네  
우리의 과거, 저네의 모습  
무에 다르단 말인가  
아름다운 꽃향기 세계를 덮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에란 말인가  
흐르는 물 한 컵 떠줘도  
은혜 못 있어 다시 찾아오건만  
그 은혜 모르면  
개돼지와 무에 다르오  
나가서 전하세  
예수의 사랑을!

朋友